

05 학력 평가와 모의 평가

오르내림을 어떻게 읽나

한 번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한 번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	3
03 혼한 오해 넷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견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학평과 모평, 백분위와 원점수
- ◆ **한 번·두 번·세 번 — 몇 번 이어졌는지로 읽는 법**
- ◆ **혼한 오해 넷** — 조건이 바뀐 것을 실력이 바뀐 것으로 읽는 자리
- ◆ **회차별 백분위 표**(직접 적는 양식) · 성적표를 못 보실 때

01 · 먼저 사실부터

견줄 수 있는 것만 견주십시오

성적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아는 것이 한 해 동안 부모님이 가장 자주 하시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는 회차마다 조건이 달라서 그냥 나란히 놓으면 안 됩니다.

견줄 수 있는 것	견줄 수 없는 것
같은 종류의 시험끼리 학평은 학평과, 모평은 모평과	학평과 모평
백분위	원점수
과목별 위치	총점

첫째 줄이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3월(학평)과 6월(모평)을 나란히 놓는 것은 다른 시험 두 개를 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줄 — 원점수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 통째로 움직입니다. 같은 실력에서도 20점이 오르내립니다.

출처: 평가원 성적 산출 방식 및 시행 안내(2026년 8월 기준). 시행 일정과 응시 대상은 해마다·시도마다 다르다. 그 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범위도 시험마다 다르다.

02 · 한 번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

세 번을 보십시오

한 회차만 보면 거의 언제나 잘못 읽습니다. 시험마다 흔들리는 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양이면	어떻게 읽나
한 번만 똑 떨어졌다	그 시험의 일일 가능성이 큼니다
두 번 이어서 떨어졌다	봐야 할 신호입니다
세 번 이어서 떨어졌다	고쳐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한다	불안정 — 대개 시험 치르는 법입니다

맨 아랫줄이 뜻밖으로 흔합니다. 실력은 있는데 회차마다 크게 흔들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건 실력보다 조건에 좌우되는 상태입니다 — 컨디션, 첫 문제, 시간 배분, 긴장. 공부량을 늘려도 잘 안 잡히고, 연습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드십시오

회차마다 과목별 백분위를 한 줄씩 적는 표입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세 번쯤 쌓이면 모양이 보입니다. 한 번 볼 때는 안 보이던 것이 표에서는 보입니다.

이 면의 읽는 법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정리한 것이며 통계로 확인된 기준이 아닙니다.

03 · 흔한 오해 넷

이렇게 읽지 마십시오

이런 판단	왜 어긋나나
「점수가 20점 떨어졌다」	시험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 백분위를 보십시오
「6월에 등급이 밀렸다」	졸업생이 들어왔습니다
「10월에 다시 올랐다」	다시 재학생만 봅니다
「한 과목이 무너졌다」	그 과목의 범위가 새로 나왔을 수 있습니다

넷 다 「조건이 바뀐 것」을 「실력이 바뀐 것」으로 읽은 것입니다.

맨 아랫줄을 짚어 두겠습니다

모의고사는 회차마다 범위가 넓어집니다. 새로 들어온 단원에서 무너지면 그 과목 전체가 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니 「이 과목이 약해졌다」가 아니라 「이번에 새로 나온 단원이 안 됐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답을 봐야 압니다. 어느 단원에서 틀렸는지를 세어 보시면 갈립니다.

그리고 「올랐다」도 조심하십시오

떨어진 것만 조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른 것도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10월 학평에서 올랐다고 안심하시면 수능에서 다시 밀립니다. 10월은 재학생만 보는 시험이니까요.

출처: 시행 안내 및 평가원 성적 산출 방식. 회차별 범위는 그 회차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표 한 장과 점검표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회차마다 한 줄입니다.

회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3월 학평				
6월 모평				
9월 모평				

백분위를 적으십시오. 등급이나 원점수가 아니라요. 그리고 **학평은 학평끼리, 모평은 모평끼리** 보십시오.

성적이 움직였을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견주는 두 시험이 **같은 종류** 인가

☐ **백분위** 로 견주고 있는가

☐ **과목별** 로 봤는가

☐ 이번 회차에 **새로 나온 범위** 가 있는가

☐ 오답이 **어느 단위** 에 몰려 있는가

☐ **몇 번 이어서** 그런지 봤는가

☐ 「아는데 틀린」 문항이 **늘었는지** 봤는가

☐ 옳은 것도 **조건을 확인** 했는가

여섯째가 이 편의 전부입니다. 한 번은 신호가 아니고, 세 번은 신호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성적이 떨어진 날 **그날 저녁에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도 이미 알고 있고, 그날은 가장 아픈 날입니다. 며칠 두었다가 표를 놓고 보십시오. 표를 보면 감정이 아니라 모양을 보게 되고, 대개는 생각보다 덜 나쁩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성적 변화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계속 떨어집니다.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세 가지를 순서로 보십시오.

하나 — 같은 종류의 시험끼리 견주고 있는지. 학평과 모평을 섞어 보고 계시면 **먼저 갈라 보십시오**. 갈라 놓으면 안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둘 — 전 과목인지 한 과목인지. 전 과목이 고르게 밀린 것이면 **집단이 바뀐 영향**이 큼니다. 한 과목이면 **그 과목의 문제**입니다.

셋 — 오답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새 단원이면 **안 배운 것**이고, 전에 하던 단원이면 **잊은 것**이고, 고르게 흩어져 있으면 **시간이나 집중**입니다.

셋이 다 다른 일이라 어느 것인지 알기 전에는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Q. 아이가 성적표를 안 보여 줍니다.

흔한 일이고, 대개 까닭이 있습니다.

보여 준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적표가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추궁의 시작이었다면 아이는 안 보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못 보셔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과목이 제일 아쉬웠어?」는 숫자를 안 봐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시험을 본 느낌입니다. 그것부터 들으시면 숫자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성적표는 학교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받아서 보시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내놓게 하는 편이 오래 갑니다.

한 줄로 남기면

같은 종류의 시험끼리, 백분위로, 과목별로 보십시오. 한 번은 신호가 아니고 세 번은 신호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시행 안내와 저희 상담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 기준은 아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